

“몸 밀려서도 볼 빼앗겨도 안된다”... 태극전사 첫 실전훈련



김진규 VS 박지성



설기현 VS 이천수



최진철 VS 안정환

G조 준비 상태 한국팀이 최고

영국 '더 타임스' 평가

영국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은 라인판이 2006 독일 월드컵 본선 G조에서 한국을 가장 잘 준비된 팀으로 꼽았다.

더 타임스는 29일(이하 한국시간) 현지 통신원의 평가를 통해 32개 본선 참가국의 월드컵 준비상황을 별점으로 매겼다.

별 다섯 개를 '완벽하게 연마된 상태'로, 별 한 개를 '피로에 지쳐있는 상태'로 분류했다.

한국은 별 셋으로 G조 중 가장 평가가 좋다. 프랑스가 별 두 개, 스위스와 토고가 각각 별 한 개를 받았다.

한국	★★★★
프랑스	★★★
스위스	★★
토고	★

C조의 네덜란드와 코트디부아르, D조의 포르투갈, F조의 브라질 등이 별 4개로 가장 많다.

더 타임스는 한국과 관련,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설기현과 조재진이 골을 넣어 2-0으로 승리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평가전 이후 대부분의 선발 라인업을 결정했다"면서 "지난 주 세네갈과 평가전에서 1-1로 비겼던 2002년 4강 팀 한국은 가나, 노르웨이와 워밍업 경기를 위해 유럽에 머물고 있다"는 짧은 소개도 곁들였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레이몽 도메네크 감독은 파비앵 바르테즈를 주전 골키퍼로 결정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서포터들의 선택은 아니다. 1-0으로 승리한 (지난 28일) 멕시코와 평가전에서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르테즈는 후보 골키퍼 그레고리 쿠페를 연호하는 관중에게 야유를 받았다"면서 선수 선발을 둘러싼 불화를 지적했다.



설기현(左) 안정환(中) 이천수(右)

→스리톱 변경→

아드보카트 감독 일단 합격판정

29일(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머레이 파크. 그라운드 중앙에서 굵고 거친 딕 아드보카트 감독의 고풍 소리가 찌릿찌릿 울려 퍼졌다.

"고(go)!...고(go)!...무브(move)!...패스트(fast)!". '결전의 땅' 독일 입성을 앞두고 1차 배이스캠프를 차린 '결실의 땅' 스코틀랜드에서 현지시간 28일 오후 아드보카트의 첫 실전 훈련이 개시됐다.

▲스리톱(3-top) '정답은 없다'
훈련 초반 20분을 워 터치 패스 연습으로 보낸 대표팀은 9대 9 미니게임으로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당장 스리톱에 변화를 가했다. 지난 23일 세네갈, 26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치른 평가전에서 선발 공격진은 두 번 모두 왼쪽 설기현(울버햄프턴), 중앙 안정환(뒤스부르크), 오른쪽 이천수(울산) 조합이었다.

이전 13차례 평가전에서 한번도 쓰지 않은 카드지만 이동근(포항)의 부상 이후 아드보카트 감독의 선발 스리톱 카드는 이 쪽으로 기우는 느낌을 줬다.

선발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를 입은 조의 스리톱 조합은 왼쪽 박주영, 중앙 안정환, 오른쪽 설기현이었다. 반대편은 왼쪽 정경호(광주), 중앙 조재진(시미즈), 오른쪽 이천수. 조끼조에 이천수 대신 박주영이 들어오고 설기현이 반대편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끼조의 결과는 괜찮았다. 첫 라운드 20분 경기에서 안정환이 뒤로 내준 어시스트는 설기현의 왼발에 걸려 시원스레 네트를 갈랐다.

10분으로 끝난 두 번째 라운드에서도 박주영-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안정환의 삼각패스로 이어진 연결 다음에 터진 안정환의 터닝 슈트 득점은 '그림'이 더 좋아보였다.

▲스트 어시스트 '기회는 짧아져서 나온다'
미니게임은 조끼조의 2-0 승리로 끝났다. 첫 골이 나오는 과정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을 연상케 했다.

안정환이 수비진을 등지고 선 자세에서 적절한 스피드와 '힘 조절'로 짧게



박주영(左) 안정환(中) 설기현(右)

미러준 볼이 문전으로 쇄도하던 설기현의 발에 정확히 걸렸다. 이 장면은 지난 23일 세네갈전 선제골, 26일 보스니아전 추가골과 '맑은 풀' 개척이었다. 세네갈전에서 박주영이 가슴 트래핑을 한 다음 뒤로 살짝 내준 볼이 김두현(성남)의 캐년슛으로 연결됐고 보스니아전에서는 박주영이 절묘하게 빈 공간으로 짧게 끊어준 게 조재진의 오른발 땅볼 슈트로 꽂혔다.

▲좌·우 불균형 '무비! 무비!'
조끼조는 왼쪽 윙백 이영표(토트넘), 오른쪽 윙백(조원희)가 측면에 포진하고 중앙에는 이을용(트라브존스포르)과 김상식(성남)이 중앙 미드필더와 수비를 겸하도록 배치됐다. 오버래핑에 능한 이영표와 볼 배급이 노련한 이을용이 선 왼쪽이 상대적으로 오른쪽 김상식, 조원희에 비해 공격 지향적이었던 탓인지 아드보카트 감독의 불호령이 오른쪽을 향해 계속 떨어졌다.

움직임이 위축되면서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좌·우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략은 본프레레호 시절부터 숙제였다. 아드보카트 감독에게도 대칭 축의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게 쉽지 않은 과제인 듯 했다.

■ 담양 다이너스티 CC 올 가을 개장

최고급 클럽하우스·골프텔 제열골프장 10곳 회원 대우

자연생태도시인 담양에 조성하고 있는 최고품격의 프리미엄 골프장 '담양다이너스티CC'가 올 가을 개장을 앞두고 전국 골프팬들에게 가을을 설레게 하고 있다.

담양다이너스티CC는 호남 최초로 골프장에 식재되는 최상급 잔디인 '제너스'가

분양가 예상가격보다 저렴

페어웨이와 깔리고, 빼어난 경관과 어우러진 자연스러운 코스설계로 "인간과 자연, 골프의 아름다운 조화를 꾀하고 있으며 클럽 하우스는 초특급 호텔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는 물론 타지역에서도 접근성이 뛰어난 개장 3개월을 앞두고 전국 의 골프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동두천다이너스티와 함평 다이너스티CC를 운영중인 대우그룹은 수도권인 안성을 비롯 담양다이너스티, 장흥, 담양 대덕, 경북 칠곡, 경산, 장성, 나주 등 전국에 계열골프장인 10곳의 다이너스티CC를 조성, 10곳 모두 회원가격을 부여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담양군 금성면 외추리 산 83번지 일원에 총 18홀(파72·6면384m) 규모로 건립중인 '담양다이너스티CC'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살린 차별화된 코스와 최고급 시설을 갖추고 있어 개장이 이뤄지면 단숨에 명문골프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 명성의 로넬드 프림이 설계한 코스는 200m의 완만한 구릉지의 이점을 살렸고, 코스별로 다양하고 독특한 특성을 살려 골프재미를 한껏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담양다이너스티CC의 또 다른 자랑이자 골퍼매니아들을 흥분시키고 있는 것은 최고급 시설의 클럽하우스와 근접성, 전국 계열 골프장 10곳을 회원대우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태리 가구로 실내장식

건평 2천585평 3층규모의 클럽하우스 외관은 영국 왕실의 성을 옮겨 놓은 듯한 모습이고, 내부는 중동 두바이의 7성급 특급 호텔 내부와 카자흐스탄 대통령궁 설계로 이름을 떨친 세계적인 인테리어 설계자 안드리아 비제고와 마쓰모토 미키가 꾸몄다.

내부는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나무결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의 엔틱가구들 모두 이태리 최고급 수입가구들로 꾸며져 최상



자연생태도시인 담양에 조성하고 있는 최고품격의 프리미엄 골프장 '담양다이너스티CC'의 10번째 정경. 뒤편에 '영국왕실의 성'과 같은 클럽하우스가 보인다.

의 안락함과 휴식을 제공한다.

접근성은 담양다이너스티CC의 또 다른 매력이다. 현재 광주에서 고속도로와 국도 24호선을 이용하면 20여분이 소요되지만 오는 12월말 88고속도로 우회도로가 완공되면 광주에서 15분거리로 이동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담양다이너스티CC회원권은 시중에 알려진 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 될 예정이며 함평다이너스티CC회원에게는 1억원내

광주에서 15분 '최단거리'

외에서 추가부담을 하면 회원가격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담양다이너스티CC회원이면 대우 그룹 계열사 소유로 함평 다이너스티(18홀·추가 9월 9일 허가), 동두천 다이너스티(18홀), 경기도 안성(18홀·인허가중), 경북 칠곡(27홀·인허가중), 장흥(27홀·6월 공사 착공예정), 나

주(27홀·토지 매입중), 장성(27홀·토지 매입중), 담양 대덕(27홀·토지 매입중) 등 전국 골프장 10곳에서 회원대우 자격으로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이외에 담양다이너스티에 스위트 룸과 로얄침실을 갖춘 골프텔을 건립해 회원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등 10여개 연계 골프장에도 모두 콘도나 골프텔을 갖춰 골프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